

해명자료

2014년 5월 14일(수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기획조정실 홍보협력담당관 배춘환(☎2110-1330)
홍보협력담당관 공보팀 김영주 사무관(☎2110-1337)

‘CJ 접촉금지령 내린 방통위·미래부..官 피아 홀대한 죄’ 제하의 보도와 관련,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☐ 언론사명 : 문화일보(1면)

☐ 보도일 : 2014. 5. 14.(수)

☐ 보도요지

- 방통위와 미래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부처 퇴직자를 홀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특정 대기업에 대한 ‘접촉금지령’(CJ 헬로비전과 CJ E&M을 대상으로 ‘업무협조 금지’ 조치)을 내림
- 방통위 실세 국장과 미래부 핵심 과장이 ‘CJ에 일절 업무 협조를 말라’고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는 부하 직원들을 질책하며 군기 잡기에 앞장섬

☐ 해명내용

- 방통위는 CJ그룹 계열사를 포함, 업무와 관련된 특정 기업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‘접촉 금지’ 또는 ‘업무협조 금지’ 조치를 취한 바 없음
- 또한, 확인결과 방통위 국장 중 어느 누구도 CJ에 협조를 하지 말도록 요구한 적이 없으며, 나아가 이에 응하지 않는 부하 직원들을 질책하며 군기를 잡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전혀 사실이 아님. 끝.